



3대리구 다산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0주일 2022. 08. 14. (다해) 제2334호

제1독서 예레 38,4-6.8-10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2독서 히브 12,1-4 복음환 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평화의 주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허찬욱 도미니코 신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오늘 복음의 말씀은 알아듣기 힘듭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라니요. 평화의 주님 아니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 하셨고(루카 10,5),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 24,36)라는 인사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평화 나름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릅니다. 남이야 어떻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자신의 심신만 편하면 그것을 평화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평화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평화를 뜻하는 구약의 단어 ‘샬롬(shalom)’은 무사태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신약의 단어 ‘에이레네(eirene)’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레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평화는 그저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평화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느님의 평화는 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의 삶은 고됩니다. 모두가 시류에 휩쓸려갈 때도 결단하는 이는 시류를 거슬러 곳곳이 견뎌냅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헌신하는 이는 분명히 떨치고 일어납니다. 휩쓸려가는 사람과 곳곳이 견디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과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열을 피하려 함께 휩쓸려갈 수는 없지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참 평화는 거짓 평화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 평화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



마르타와 마리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얼핏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와 아주 가까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것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에서(요한 11,1-54) 마르타와 마리아는 형제 라자로의 죽음엔 슬퍼하나 지금, 여기서 시작된 예수의 부활과 생명엔 무딘 반응을 보인다. 부활과 생명을 갈망한 마르타와 마리아는 지금의 예수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예수를 기다린 것이다. 예수와 가깝지만 예수의 진면모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마르타와 마리아는 오래되어 진부한 신앙에 갇혀 새로운 ‘지금’을 아쉽게 만든다.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어떤가(요한 12,1-11). 향유를 붓는 여인을 마르코 복음은 무명으로 소개하지만, 요한 복음은 마리아로 내세운다. 도유의 행위는 예수의 장례 날을 가리키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며 도유를 한 마리아조차 예수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도유의 본디 의미는 예수가 걸어가는 십자가 길을 훑아 보는 일련의 이야기 안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막 터놓은 셈이다. 비록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루카 복음에는 마르타와 마리아 사이에 다소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는 이야기도 있다(루카 10,38-40). 손님을 맞아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타와 다르게 마리아는 마치 제자인 듯 예수 앞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마르타는 분주했다(루카 10,40). ‘분주하다’로 번역된 그리스 말 동사 ‘페리스파오마이(περισπασμαι)’는 과도한 일에 억눌려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 상실의 상태를 말한다. 마르타는 예수를 시중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듯 하나, 중요한 일을 해내는 자신이 버거웠다. 예수를 모시려 했으나 예수를 잊고 자신을 잃었다.

반면 마리아는 앉아 있고,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는 ‘좋은 몫’이라 한다. 무엇이 중한가. 무엇이 값진 것인가. 예수 앞에 어떤 모습이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르타를 활동 수도회로, 마리아를 관상 수도회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느님 일에는 활동도 관상도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두 여인을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하게 뒤틀려 어지럽게 된다. 누가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본질을 비껴간다.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왜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마리아는 더 혹은 덜 좋은 몫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제 몫을 누리고 있을 뿐이고, 예수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 했다. 예수는 제 일과 몫을 제 것으로 즐길 줄 아는 이에게 드러날 뿐이다.

제 삶과 일을 제대로 즐기 위해서는 실은 제 삶과 일에서 적당히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일에 파묻히고 일에 저당잡혀 일 그 자체를 제 삶으로 여기는 경우, 우리는 제 것 외의 다른 삶을 허망한 것이라 우긴다. 허망하다라는 해석은 대개 다른 이의 삶을 재단하고 고단하게 만든다. 무뚝뚝한 가부장적 아버지는 제 일이 곧 가정의 일이고, 가정을 건사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안일을 허망하게 폄훼했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쓸고 닦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개고 넣고... 이 모든 일을 ‘집에서 노는 일’이라 했다. 노는 그 일이 아프고 슬프고 그럼에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은 어머니의 손에 길러진 수많은 자녀들의 삶이 증명한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길 역시 안타까운 유한함에 갇혀 제 것을 전부로 착각하는 지금의 모습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제 일과 삶에 얼마간의 객관적 거리가 제 일과 삶의 미학적 심연을 더욱 깊게 만든다. 예수 앞에서 그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는 마리아. 그녀는 실은 제 삶 안에 비친 예수를 통해 제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곰곰이 듣는 것이 지금, 진부하고 고착화된 우리의 신앙 안에 갇힌 예수를 숨 쉬게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저마다 숨 쉬게 된다. **필로**

창세 26장 인간 이사와의 계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길을 걸어온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왔음을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된다.

창세기에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인계를 쓰려다 오히려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성조들의 이야기가 세 번 나온다.(창세 12,10-20; 20장, 26장 참조) 이 일화들은 전승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창세기 26장은 이사와의 흥년을 피해 필리스티아의 그라르에서 겪은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필리스티아의 주민들은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었다. 특히 가나안 남쪽, 네겟지방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지대여서 늘 가뭄이 극심한 반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이런 여건 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사와에게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라르' 지방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신다.(창세 26,3-4) 그러나 성조 이사와는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구하려는 비열함과 불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낸다.(창세 26,6-7,9) 그러나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은 한 개인의 범죄가 백성 전체에게 멸망을 가져올까 두려워한다.(창세 26,10-11) 이런 이사와의 인간적인 결점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충실히 내리신다.(창세 26,24,28) 고대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중요한 재산이었다. 우물은 조상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었으며, 그 소유권을 후손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이사와는 선친이 파놓은 우물들과 새로운 우물을 더 팠지만, 이 우물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창세 26,14,20-21) 이때 아비멜렉이 이사와를 찾아와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창세 26,25)라고 한다. 고대 유목민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라고 인정될 때만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이사와를 자신과 동등한 신분의 소유자, 곧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조상을 모신 이스라엘은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왕적인 신분과 명예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간접적인 증언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는 역설이다.

그라르에서의 이사와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조차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우리의 비열한 속성과 한번 맺으신 약속과 맹세에 충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필요**

말씀 맞히기 Q & A

1. 이사와가 받게 되는 축복과 약속은 누구의 덕분인가요?
2. 이사와가 아내 레베카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사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8월 19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8월 21일 연중 제21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성모당 부지를 매입하다

3월 1일 금요일

성 요셉 성월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제대를 장식했다. 나는 교우들에게 매일 성월을 바칠 때 촛불을 바치도록 권유했다.

3월 4일 월요일

총독부는 교구가 프랑스로부터 받은 금액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했다. 나는 뮌텔 주교처럼 이 조사가 무례하다고 생각되어 전교회와 성영회 지원금의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3월 6일 수요일

우리는 '명도회관(明道會館)'으로 불리는 새 건물에서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무세 신부는 그의 새로운 경리 사무실에 정착했다. 그곳은 대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처하던 그의 방과 비교하면 거의 그렇게 보였다. 나의 거처는 여전히 같은 상태이다.

3월 9일 토요일

나는 그저께부터 피로 때문에 방을 지켜야 했었는데, 이제 그 피로에서 회복됐다. 어제 내가 자리에 누워 있는 동안 같은 문제에 관련된 부피가 큰 우편물을 받았다. 파리외방전교회 위원회의 편지, 샤르즈뵈프 신부의 편지, 그리고 술레 주교의 편지 한 통을 전하는 뮌텔 주교의 편지들이었다. 샤르즈뵈프 신부는 새 지도자의 귀환을 계기로 자신의 사표를 제출했다. 나는 그의 사직이 정당하다는 조건 아래 그를 받아들였고, 파리의 위원회는 그를 대구의 선교사로 간주하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요청했다. 술레 주교는 거절을 했고, 뮌텔 주교도 그의 의견을 따랐다. 나는 뮌텔 주교에게 그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고, 샤르즈뵈프 신부에게 문제가 해명되기 전에는 프랑스를 떠나지 말도록 편지를 써 보냈다. 같은 우편물 가운데 페네 신부의 편지가 있었는데,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10일 일요일

우리는 주교관이 건설되기로 예정된 대지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의 작은 언덕을 매입했다. 나는 그 언덕의 부지 위에 동굴을 만들려고 한다.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묘지는 어떤 냉담 교우의 소유인데, 그는 그것을 서 아오스딩(徐相燾)에게 팔려 하지 않았었다. 그는 그것을 온당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양도했다. 이 협상으로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다시 수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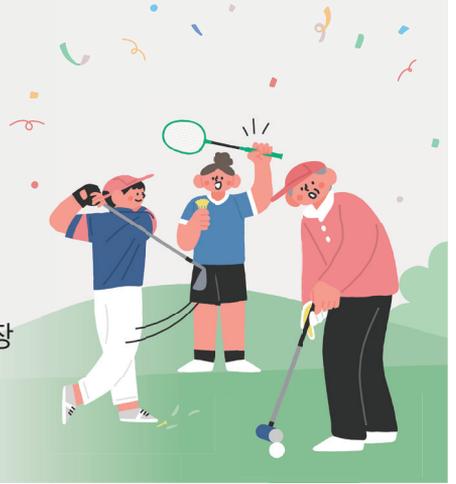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기 경기 대회 안내

2022년 하반기에 교구장기 경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대구대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회 배드민턴대회 : 10월 9일(주일) 대구 남구 국민체육센터
- 제9회 게이트볼대회 : 10월 11일(화) 대구 성서실내게이트볼구장
- 제1회 파크골프대회 : 11월 7일(월) 대구강변파크골프장

■ 문의 : 교구 사목국 (053-250-3057)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오픈

2022년 8월 19일 (금)

최신 시설과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합니다.

전국 최초

화환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분리수거 철저히 지키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83호 정답

1.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
2. ① ② ③ ④
3. 16번
4. 하느님의 모상, 만이, 창조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ژی오

미사 안내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8월 20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0일(토) 11:00 월성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8.20(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수시문의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성모술술마을 효소단식 프로그램

효소단식 치유 피정 3박 4일

매월 셋째주(목요일~일요일)

참가비: 30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청도성모술술마을, (054)373-3955

효령하늘집 피정

피정은 지난 삶에 대한 휴식과 위로요,

거듭남의 새로움을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 너와 단둘이 만나고 싶단다.

문의: (054)382-0091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건강검진센터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검진 및 종합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320-2061

온라인 예약: www.tcmch.co.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교구 외 | 기타 알림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8.15(월)~9.25(일)

방법: 순례자 여권세트 구입,

스탬프 찍기, 축복장 수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727-2528

2023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기간: 9.5(월)~9.23(금)까지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22.8.22~2023.3.31

대상: 만 15세~40세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 취업지원

문의: (02)828-3600

예수회센터 동영상강의(사전 녹화본)

·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 가톨릭 사회교리

· 꿈을 통한 영적 치유

·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신청: http://center.jesuit.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맥)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9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WIDEX 달서점

와이텍스 보청기

前) 대구북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가만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원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Sc 현대S라이프

합병 2주년 현대S라이프 매일상조

크루즈, 웨딩, 장례 상담

상담전화 1566-1678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교구 | 대리구 알림

제11차 약혼자주말

일자: 8.26(금)~28(일)

장소: 사수동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

대상: 예비부부,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마감: 8.19(금) / 선착순 8커플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4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자: 9.15~10.27(매주 목, 7주)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모든 어머니

마감: 9.7(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성주성당 사무장 채용 안내

자격: PC 능숙,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054)933-312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신앙여정, 난타, 장구, 사군자문인화,

서양화, 프랑스자수, 칼림바, 발성법,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정리수납 2급,

이론화, 사범꽃꽂이, 포슬린 아트,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 동부유럽 12일 385만원

11.1 성모발현지 12일 375만원

11.15 발칸반도(메주고래) 11일 365만원

12.1 이스라엘 9일 370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바로로말 여성 프로그램

말씀테라피: 9.7(매주 수 12주) 14:00~

어른도 행복한 그림책:

9.8(매주 목 8주) 10:00~12:00

고해성사와 성체조배: 9.6(매주 화 14시~)

신청문의: (010)6681-5185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장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대구베네딕도성경학교 심화과정 모집

일자: 매주 월 10:00, 19:30 (9.5 개강)

장소: 베네딕도 교육관(내곡로 123)

주제: 사도들의 삶과 영성(비대면 가능)

문의: 배이사악 수녀, (010)7185-3431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기간: 8월 말~12월 중순(16주간)

화, 토요일(선택) 10:00~17:30 / 80만원

수, 목요일(선택) 9:30~13:00 / 40만원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성바로CPE센터, (010)4996-5508

마리아사제운동 8월 미사 안내

일시: 8.20(토) 10:00 삼덕성당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문의: 평신도 대표, (010)9366-9170

이 운동은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운

동이며, 기도모임을 체나콜로라고 합니다.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391차: 9.2(금)~4(일)

392차: 10.28(금)~30(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파크골프
국산채, 수입산, 홈바4스타 초보자 무료레슨
임팩트충만! ❗️ 혁신의용기! ❗️ 소형가전
소금염착색기 게르마늄옥매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례로 142 (미포동 경성힘 모은편)
대표원장 이세원(우카) 053-571-007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투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아오스팀),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30-1
신남역(청라안덕역) 9번 출구 적탑병원 4층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안내외과교수)
안과전문 의 서재신(베드로) · 장주현(버버민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윤영하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용현 바로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